

율법이 죄입니까?

롬 7:7~14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켜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죽음에 대해서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7장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크리스천들이 율법에서 구원을 받았으며 그 결과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는데 특별히 4절과 6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듯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셨던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십니다.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예수님이 다 지셨고 완성이셨고 마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요, 율법의 모든 요구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율법에 자유한 사람은 의문의 목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의 요약입니다.

완전하고 거룩한 율법

그렇다면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율법도 죄가 되느냐?”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받았다면 율법이 잘못된 것이냐?”는 것입니다.

죄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는 악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따라서 죄의 노예가 되어있는 우리들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나서 의의 병기가 되고 의의 종이 되는 것을 가리켜 ‘해방’, ‘구원’,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믿고 구원을 받아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받아들이겠는데, ‘왜 율법에서 자유함을 받아야 하는가?’, ‘율법은 악한 것인가?’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죄는 잘못된 것이지만 율법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7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율법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을 보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율법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한 것이며 의로운 것이며 선한 것이며 완전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어찌 잘못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그렇게 완전하고 거룩하고 선하고 좋은 것이라면 왜 우리가 거기에서 도망가야 합니까? 왜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야 합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사도바울은 이미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다시 말하면 율법은 언제나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보다는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들에게 사망을 줍니다. 저주와 파멸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절망케 하고 고통케 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경우는 다릅니다.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고통과 저주와 사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완전한 것인데 죄를 지은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로부터의 해방도 받아야 되지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본질적으로 죄인인 인간이 받는 고통으로부터도 해방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왜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율법이 없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율법이 내게 왔을 때에는 죄가 죄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숨겨진 죄들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죄’라고 판명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 많이 겪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을 믿고 난 후 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교회 나오기 전에는, 성경공부를 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며 세상의 기준대로 살 때에는 아무런 가책이 없었지만 교회에 오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기준이 전부 달라진 것입니다.

한가지 예로 ‘낙태’를 들 수 있습니다. 세상사람들이 낙태를 다 하기 때문에 그냥 했습니다. 그것을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함으로 그것이 살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으면 그런 고민은 없었을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면 누가 죄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겉으로만 간음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속으로 간음한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으로는 살인을 해도 겉으로만 살인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내가 죄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죄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우리가 듣지 않았으면 몰라도 우리가 들은 후부터 굉장한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마음대로 남의 것을 내 것인줄 알고 가졌습니다. 힘이 정의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동물의 세계와 같습니다. 동물의 세계에 있어서는 힘있는 동물이 약한 동물을 이기는 것입니다. 잡아 먹어도 누가 살인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우는 단어가 있습니다. ‘약육강식(弱肉強食)’, ‘적자생존(適者生存)’이라는 말입니다. 이 논리를 사람들이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자기 보호막을 쳐놓고 그것을 ‘정의’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안주하고 안심하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동물들이 간음한다고 누가 야단을 합니까? 누가 약한 동물을 잡아먹었다고 강한 동물을 감옥에다 집어넣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힘이 곧 선(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법을 죄에 몰들어 멸망하게 된 인간이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주는 고통

죄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지 못하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같은 수준의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고통입니다. 이런 내용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율법이 오기 전에는 탐욕이 내게 그리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짓게 되거나 죄가 통용되는 사회에 있으면 그것이 진리나 정의처럼 느껴집니다. 죄가 문화화 되고 습관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탐하지 말라’는 계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 말씀이 계속 내게 있는 것입니다. ‘탐하지 말라’는 계명을 받은 이후엔 그것에 걸려 내가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죄로 드러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계명이 있기 전에는 죄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좀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세상살이가 그렇고 그런 것이 아니냐?”하며 넘어 갔는데 계명을 받은 이후에는 죄가 분명해 진 것입니다.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나고 드러난 죄가 격동을 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기 전까지는 적당히 살았는데 그 말을 듣고 난 후부터는 더 하고 싶은 것입니다. 갖지 말라고 하니깐 더 갖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음모와 충동과 격동이 율법이 없을 때보다 더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겉으로 하지 않고 속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지 않고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갈등을 내 안에 계속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적당히 숨겨져 있을 때에는 가장을 할 수 있지만 일단 자기의 본질이 드러나면 막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들어오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고 했습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죄가 드러나면 죄를 더 짓게 되고 나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을 혹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이런 경험이 전혀 없습니까?

동물처럼 살던 인간이 도덕과 양심의 법을 갖게 되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동물처럼 살았으면 좋겠는데 도덕과 양심의 법이 살아 있기 때문에 고민과 번민과 갈등을 하게 됩니다.

도덕과 양심의 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법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지킬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서, 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자화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이를 수 없는 인간의 좌절감.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오만하고 무례하고 이기적인 인간의 내면적인 자기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선을 행하지 못하거나 의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어차피 자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좌절감이 깊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 누가 봐도 죄인으로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은 이 문제로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덕과 양심이 예민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된 후로 선을 행하면서도 위선자요, 구제를 하면서도 오만한 자

라는 것을 자신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칭찬을 하지만 사실 이 사람의 마음은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다른 위선이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 예수님을 핍박할 때는 잘 몰랐습니다. 자신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줄 알았습니다.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신이 굉장히 의롭고 정의로운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겉으로는 간음이나 살인, 부정을 하지 않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만과 남을 정죄하는 마음, 심판하는 마음으로 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늘 쫓기는 듯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정의로운데 불안합니다. 진리를 말하는데 불안한 것입니다. 이런 영적 고통과 갈등을 지성인이었던 바울은 오래 전에 겪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 24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갈렸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요(히 10:1),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갈 3:24)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가 율법 앞에 서서 율법을 지키려고 뼈를 깎는 고통을 느낄 때마다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입니다.

저는 이것이 한 지성인의 정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느끼는 좌절감이 있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는데 행할 능력이 내겐 없구나! 어쩌면 이렇게 나는 좌절된 인간이냐? 어쩌면 이렇게 거꾸로 된 인간이냐?”라는 것을 고민한 것입니다. 나중에 한 말은 ‘죄인 중의 괴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존경과 칭찬과 신앙이 좋다고 말을 하지만 내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절망감, 육체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없는 좌절감, 애쓰면 애쓸수록 고통을 느끼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고민입니다. 이것은 죄를 지음으로 받는 고통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큰 고통입니다. 눈에 보이거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세계에 있어서 예수님도 적당하게 믿고 죄도 적당하게 짓는 사람에게는 큰 고민이 아니겠지만 의롭게 살면 살수록, 진리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따라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앞에 가면 갈수록 도리어 내게는 그것이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삶만 사망이 아닙니다. 율법의 완전함,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의 본성,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죄악성이 예민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것이 죽을 노릇이란 말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주어진 하나님의 법이요,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몽학선생인데 어떻게 이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지 않고 도리어 사망이 되는 것인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왜 내게 사망이 된 것인가?” 이것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의 고통이요 실존적 절망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고통을 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

이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로마서는 우리에게 빛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고 완전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 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요구를 하나도 틀림없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 앞에 서 있으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괴로와 하지만 율법을 지키신 예수님 앞에 가면 그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율법으로 가면 율법의 노예가 되어 살 길이 없지만 그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가면 내가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흘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세상에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들어가면 지나간 나의 죄를 다 용서 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죄도 용서를 받고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은 율법 앞에 서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겠습니까? 아무 누구도 율법을 지킬 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것도 똑 같습니다. 율법으로 가면 다 다칩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가면 다치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먼저 다칠 사람은 정의를 말하는 자신입니다. 따라서 율법이나 정의로 가면 나라가 망합니다. 은혜로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합니다. 그것은 불의해 지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옷 입게 되면 의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 봐도 별 것이 없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별 것이 없고,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집단이 아니냐고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된 것은 이 복음의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렇습니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결국 죄가 나타나고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이게 한 것입니다.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죄입니다. 율법이 아니요 죄인인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죄는 나를 멸망시키고 파괴시킵니다. 그러나 율법은 나로 하여금 죄를 똑바로 보게합니다. 죄는 나를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를 똑바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죄로 멸망당하는 고통이나 죄를 똑바로 보는 고통이나 똑같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는 고통은 대단한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기가 쉽습니까? 자꾸 변명하고 그럴지 않다고 이야기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정직하게 자기의 허물과 죄를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것인데 이것이 사망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가면 그만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면 지옥에 갑니다. 구원을 받으려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없는 대로 쉽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숨기면 안 됩니다. 드러내서 치워야 하고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런 숨겨진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를 다 드러내면 그것이 추하고 더럽고 기가 막힌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야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으로 인해 죄가 드러나면 죄를 씻을 수 있는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몽학선생이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잠정적으로 있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뜻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율법적이 되어갑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율법은 나의 잘못된 모습만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율법 안에 들어가면 절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은혜가, 보혈의 피가, 성령의 역사가 나를 새사람으로 만들고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신령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육신에 속하여 나는 죄 아래 팔린 존재입니다. 여기에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사람은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옳으나 그르냐’ 인류는 끊임없이 이것을 가지고 싸우지만 길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키신 분이십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에게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약점과 실수를 다 씻어 주셔서 아들의 형상을 닮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기도함시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으로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온누리신문」 제공 - <http://www.onnurinews.com/>